

환경을 지키면 모두가 잘 사는 선순환

탄소지움카드와 함께 시작하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고 내 지갑을 살찌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고양시 관내 일반형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평일 첫날 요금의 포인트로 쌓인다. 성인은 매주 최대 2,900포인트, 청소년은 매주 최대 2,020포인트를 한도로 하여, 월 1회 단위로 지급받는다. 1년으로 따지면 성인은 15만800원, 청소년은 10만5,040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좌석버스와 광역버스는 적립 대상이 아니니 헛갈리지 말자.

9월부터는 로컬 푸드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0.3%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로컬 푸드는 고양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아 온실가스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지역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가 환경 보호로 이어지는 셈이다. 기후 환경 교육 수수료에 대한 혜택도 9월부터 시작된다. 이는 평생학습 마일리지로 주어지는데, 기후 환경 교육(1시간당 5마일리지), 시민 활동(1개월 40마일리지), 각종 행사 참여(1회당 20마일리지) 등이다. 50마일리지가 넘으면 10마일리지를 1,000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으니, 착실하게 쌓아 보자.

1년 365일 이어지는 녹색 생활

찬바람 불어오기 시작하는 계절에도 탄소지움카드의 활약은 계속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11월에 오픈하는 ‘푸른 고양 나눔 마켓’이다. 이는 유아용품 나눔이나 교복 물려주기, 재활용 수공예품 판매 등 시민 간 자율적인 나눔·리퍼·교환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추후 자원순환가게, 자원봉사센터 등과도 연계된다.

12월부터는 탄소 포인트 감축과 지역난방 절감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환경부 정책인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5% 이상 감축 대상자부터 연 최대 5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고양시 관내 입주 3년 이상 아파트 단지 중 12월부터 2월까지의 난방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률이 높은 상위 10개 단지로 선정될 경우 세대 규모에 따라 50~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탄소지움카드와 함께하는 초록빛 녹색 생활이 나를 살리고 고양을 살리며 지구를 살린다.

GREEN INTERVIEW

66 고양 탄소지움카드 홍보 요원들의 초록빛 메시지 99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강성심(일산서구 일산3동)

지금 바로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탄소를 지우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로 우리 모두 함께 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낮춰보아요!



깨끗한 환경 만들기, 우리 손에서 시작됩니다.

김연숙(일산동구 백석동)

저탄소 녹색 생활을 하면 할수록 혜택이 쌓이는 고양 탄소지움카드를 통해 깨끗한 지구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보세요. 탄소 중립이라는 아름다운 여정, 소중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지만 큰 실천이 우리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고양 탄소지움카드와 함께 하는 녹색생활 실천

<p>✓ 대중교통 이용 시 마을버스 시내버스(일반형)</p>  <p>인센티브 지급 (7월)</p>	<p>✓ 로컬푸드 이용 시</p> <p>LOCAL FOOD</p> <p>인센티브 지급 (9월)</p>	<p>✓ 기후·환경교육 수수료 시</p>  <p>인센티브 지급 (9월)</p>	<p>✓ 온라인 나눔마켓 이용 시</p>  <p>나눔·리퍼·교환 가능 (11월)</p>	<p>✓ 탄소포인트 감축 시</p>  <p>인센티브 지급 (12월)</p>	<p>✓ 지역난방 절감 시</p>  <p>공동주택 인센티브 지급 (12월)</p>
---	---	--	---	--	--